

시카고 에이즈 학회 참관기



오명훈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감염내과 교수

미국에서 열린 레트로바이러스 및 기회감염증 학술대회에 다녀왔다. 이 학술대회는 미국의 국립보건원과 질병관리센터가 주관하는 에이즈 학회이다, 1994년 처음 시작되어 올해로 5번째를 맞는 이번 학회는 2월 1일(일요일)부터 2월 5일(목요일)까지 미국 중부의 시카고에서 열렸다. 학회 장소는 시카고 강변의 셰라톤 호텔이었다.

사실 에이즈와 관련된 학회중 가장 유명하고 오래된 학회는 세계에이즈 학회이다. 그러나 세계에이즈 학회는 참가 인원이 만 명을 넘을 만큼 규모가 크고, 다루는 분야도 매우 다양하여 학회가 너무 산만하다는 단점이 있다. 여기에 비해 미국의 에이즈 학회는 참가자수를 제한하고, 단체등록이나 현장 등록은 받지 않으며, 제약회사들이 선전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공부하는 학회"가 되도록 배려하고 있다. 시카고는 겨울에 춥고 눈이 많이 오기로 유명하며, windy city란 별명이 붙을 정도로 바람이 드센 도시이다. 이런 곳에서 학회를 연다는

사실도 공부에 관심이 없으면 아예 올 생각을 하지 말라는 암시가 아니겠는가.

이번 시카고행은 처음부터 별로 마음에 내키지 않았다. 에이즈 학문을 지난 1년 동안 이렇다할 진전이 없다는 것은 학술지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는터라 이번 학회에서 새로운 발표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더구나 IMF가 한국 경제를 관리하기 시작하여 미국돈이 두 배 이상 비싸진 때라 450불은 아무리 얻는 지식이 많더라도 본전 생각이 날만큼 비싼 등록비였다. 또 벌써 세 번이나 다녀온 시카고는 여행지로서 내 흥미를 끌지도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카고에 간 것은 내 논문을 발표하기 위해서였다. 나는 2년간 하버드 의대에서 허쉬 박사와 함께 에이즈 치료에 관해 연구하였는데 이때 얻은 결과를 발표할 의무가 내게 있었다. 우리나라에는 연세의대 김준명 교수, 부산의대 조군계 교수, 울산의대 우준희 교수, 그리고 한국MSD 김태윤 이사도 참석하였다.

에이즈 치료에 가장 좋은...

에이즈 치료에 가장 좋은 치료법은 "칵테일 요법"이다. 칵테일 요법이란 에이즈바이러스 치료제 3가지를 동시에 투여(3제병합요법)하는 것이다. 3병합요법을 받은 환자들은 에이즈바이러스가 혈중에서 검출되지 않는다는 임상시험 결과가 발표된 것은 1996년으로 이 결과는 많은 환자들로 하여금 "에이즈를 완치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하였다.

그러나, 약물치료는 활발히 증식하는 바이러스에만 작용하며 잠자는 바이러스에는 듣지 않는다. 잠자는 바이러스는 쉬는 림프구(resting lymphocyte)속에 존재한다. 이 바이러스는 3제병합요법을 쓰더라도 제거되지 않으며, 더구나 잠에서 깨어나면 증식할 수 있다는 결과가 이번 학회에서 발표되었다. 이 연구 결과는 3제병합요법으로 혈중에서 바이러스가 없어진 환자라도 약을 끊으면 바이러스가 다시 증식한다는 것을 뜻하며, 에이즈 완치가 아직도 요원한 목표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도 치료방법은 있다. 완치에 걸림돌인 쉬는 림프구를 인터루킨으로 자극하면 된다. 즉, 인터루킨을 투여하여 림프구를 자극하면 바이러스가 증식을 시작하게 된다. 이때는 다시 바이러스가 항바이러스제에 듣는다. 이것이 바로 인터루킨과 항바이러스제를 동시에 투여하는 Purging treatment이다. Purging treatment는 미국 국립보건원의 파우치박사팀이 이번 학회에서 소개한 치료 방법인데, 이 방법으로 환자를 치료한 성적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화요일밤에는.....

화요일날 밤에는 시카고의 중심가에 있는 존행록 빌딩에 올라갔다. 시카고에서 제일 높은 빌딩은 시어스타워이다. 그러나 시어스타워에는 전망대만 있고 식당이 없다. 그래서 두 번째로 높은 존행록 빌딩에 간 것이다. 내다보니 주위는 캄캄한데 주황색 가로등불이 일직선을 이루며 지

평선 끝으로 달리고 있었다. 미국 땅이 정말로 넓다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었다. 존 행록빌딩에 올 수 있었던 것은 김태운 이사께서 사전에 치밀히 준비한 덕택이었다. 저녁 식사중에 고려대 김우주 교수가 동석을 하였다. 김교수는 2년 전부터 시카고에 장기 연수를 나와 있었다. 김교수는 내 옆자리에 앉으면서 "오선생 것입니다"하며 봉투를 건네주었다. 봉투에는 고동색 캐주얼바지가 하나 있었다. 내것인가 긴가 민가 들여다보고 있는데 김교수는 "96년도 뉴올리언스에서 오선생이 호텔방에 두고 간 것입니다"라고 내 기억을 도왔다. 96년도 ICAAC에 참석하기 위해서 나는 보스톤에서, 김교수는 시카고에서 뉴올리언스로 와서 한방을 썼다. 그때 내가 깜박 잊고 놔 두고간 바지를 김교수가 챙겨 둔 것이다. 몇 주 후 서울로 돌아갈 준비로 정신이 없을 김교수가 내 바지까지 챙겨주어서 송구스럽기도 하고 또 고맙웠다.

관해유도 및 유지요법.....

수요일날 오후에 나는 "Induction and Maintenance Regimens of Zidovudine, Lamivudine, and Indinavir in vitro"라는 제목의 논문을 포스터(poster no. 631)로 발표하였다. Induction and maintenance regimen(관해유도 및 유지요법)이란 병이 심할때 여러 가지 약제를 동시에 투여하고, 이렇게 하여 병이 조절되면 약제의 수를 줄여 쓰는 치료법을 말한다. 관해유도 및 유지요법은 항암 약물치료에서 그 효과가 임



시카고에서의 필자

수요일날 오후에 나는 "Induction and Maintenance Regimens of Zidovudine, Lamivudine, and Indinavir in vitro" 라는 제목의 논문 포스터 (poster no. 631)로 발표하였다. Induction and maintenance regimen (관해유도 및 유지요법)이란 병이 심할 때 여러 가지 약제를 동시에 투여하고, 이렇게 하여 병이 조절되면 약제의 수를 줄여 쓰는 치료법을 말한다.

증되었으며, 백혈병 치료에 널리 쓰이는 치료 전략이다. 내 논문의 요지는 3약제를 투여하여(관해유도 요법) 에이즈바이러스의 양이 감소하면, 그 다음에는 약제를 1가지 또는 2가지만 쓰더라도(유지 요법)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할 수 있다는 실험 내용이다.

현재 3제병합요법을 받은 환자들 중 상당수는 혈중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는다. 3가지 약물을 계속 복용하는 것은 경제적 부담이 크고 약물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성도 높다. 만일 관해유도-유지요법의 효과가 입증되면 이것은 카테일 치료에 견줄만한 희소식이다. 그러나, 이번 학회에서 발표된 임상시험 결과는 불행하게도 내 실험결과와는 다른 것이었다. 3제병합으로 6개월간 관해유도 치료를 한 다음 2제 또는 1제로 유지요법을 받은 환자는 계속 3제병합요법을 받은 환자들보다 치료 성적이 나빴다.

포스터 발표장에서 나는 허쉬 박사의 실험실에서 함께 일했던 친구들을 만났다. 특히 1년만에 만난 허쉬 박사는 요즘은 내게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매우 관심있게 물어보았다. 내 실험의 '숙달된 조교역'을 맡았던 Deb Merrill은 새로운 단백질분해효소 억제제인 1592U89에 관한 포스터를 바로 내 옆에서 발표를 하였다. 연락이 끊겼던 태국 친구 Asda도 만났

다. 미국에서 감염병 전문의를 받은 Asda는 1995년에 태국으로 돌아가 방콕에서 에이즈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그는 하루에 100명도 넘는 에이즈 환자를 진료하지만, 환자들이 가난하여 항바이러스를 복용하는 환자는 거의 없다고 하였다.

이번 학회에서 전태욱 선생(Lab of immunoregulation, NIH)을 처음으로 만났다. 전 선생은 3제병합요법으로 혈중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더라도 쉬는 림프구 안에 바이러스가 남아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여 세계에 널리 알려진 한국인 과학자이다. 이번 학회에서 전 선생은 "presence of inducible HIV-1 latent reservoir during highly active antiretroviral therapy"라는 논문을 발표하여 여러 사람의 주목을 끌었다. 전 선생은 10여년 전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에이즈바이러스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고, 지금은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파우치 박사와 함께 일하고 있다고 하였다. 우리나라의 젊은이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과학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몹시 기뻐다. 나는 기회가 있으면 전 선생을 우리나라 학회에 초청하겠다고 하였고, 전

선생은 한국에서 부르면 기꺼이 오겠다고 약속하였다.

시카고에서 벌써 20년이...

시카고에는 벌써 20여년전에 이민 온 내 외삼촌이 살고 계시다. 나는 학회가 끝나던 저녁에 외삼촌댁을 찾아갔다. 외삼촌은 한국이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되면서 미국에 사는 한국사람들을 그래도 무시하지 못하였었다. 그러나 한국 경제가 IMF의 관리 체제로 들어간 이후에는 한국에서 왔다는 말을 하기에 부끄러울 정도라고 하셨다.

우리는 목요일날 밤(사실은 금요일 새벽 0시 40분)에 시카고를 출발하는 비행기를 탔다. 이번 학회에서 발표된 논문의 수는 800여편에 이른다.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에이즈학회에 발표된 이들 논문은 인류가 에이즈를 정복하기 위하여 기울인 노력으로 얻은 지난 1년간의 성과이다. 그러나 환자들에게 줄 반가운 뉴스가 없어서 귀국행 비행기를 타는 마음은 무겁기만 하였다. 그런데 김준명 교수가 시카고학회의 가장 큰 수확이 될 것이라며 한국에이즈공동연구팀(가칭 Korean AIDS Reserch Group)을 만들자는 제안을 하였다. 김교수의 제안에 조준제교수와 나는 동의하였고, 서울에 돌아가서 구체적인 일을 시작하기로 약속하였다.

이번 학회의 내용은 웹에 올라와 있다. 인터넷 주소는 www.retro-conference.org이다. 중요한 강연과 심포지움을 보고 들을 수 있다. **A**

